

가정예배 · 구역예배

1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세광출판사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1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4)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④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충현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마 16:18)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⑥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교회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⑦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가 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골시설 건립 및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합니다.
믿음을 실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은총으로 열어주신 2009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전진합시다!

2009년 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절박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는 시인으로 하여금 온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만든 구체적이고도 체험적인 하나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1~6절)와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7~14절)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 다. 그러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십니다.(1절) 하나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4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기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총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2009년 새해에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기도 제목 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신년 감사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위험한 순간,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주하며 어려움에 처해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1~5절) 기도하는 다윗은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6~9절)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던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6절) 이 고백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믿음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더욱 의지하는 사람, 다윗의 결국은 끝없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 하소서”(9절)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험한 순간과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자기연민이나 우울증으로 헤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전쟁이 났다고 공포하지 않은 채 우리 영혼에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의 힘과 방패이며, 구원의 요새이셨습니다.(7~8절)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시 28:1)

기도 제목 ① 환난과 역경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며 3~9절 사이에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고 온 우주의 모습을 보고 들을 때 위대한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장엄하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폭풍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 주의 말씀도 권능이 있어서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5~7절)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며(1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경배하며(2절)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시고 존귀하신 것만큼 우리도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폭풍의 위력이 멀리 가데스 광야에까지 미친 것처럼 땅 끝까지 전해야 하며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2009년 CMTC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팀훈련과 여러 과정이 있지만, 핑계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며, “하나님의 소리”를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 29:2)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CMTC(선교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주신 것과 역경 중에도 여전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극진하게 찬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2절), 불순종한 자신을 향하여 잠시 진노하시고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5절),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6~10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이처럼 많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십니까?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은총은 평생이로다”(5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7절)와 같은 고백은 갖은 역경을 딛고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진도”(9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번영을 누리자 지만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죽음 직전에 처하였음을 간증합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는지요?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교만함을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겸손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시 30:12)

기도 제목 ①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2009년 제1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원수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고백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1~8절)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원수를 잠잠케 하시기를 요청하며(14~18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며(19~22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권고합니다.(23~24절) 주의 공의(1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며 인내하는 의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과 그에 따른 보상을 의미합니다. 꺾박받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습니다. 아울러 주의 공의는, 비록 인생이 연약하여 언약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롬 1:16)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5절) 다윗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믿고 주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또한 “부탁하나이다”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음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자신에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눅 23:46) 다윗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소원하며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겼으나,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생명을 소원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의 생명 전부를 그분에게 부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24절)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시 31:5)

기도 제목 ① 생명까지 주님께 의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생의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뼈가 쇠하게 됩니다. 또한 주의 손이 우리의 양심을 누르므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됩니다.(3~4절) 이러한 죄의 짐이 우리를 누르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죄는 우리를 스올로 내려가게 하며, 진액이 빠져서 지치게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죄악임을 뼈저리게 느낀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5절)라고 합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참회시로 불러우는 이 시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탓이라고 여겨 회개하며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5절) 하며 물밀듯이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묘사합니다.(1~5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권고하며(6~10절) 여호와를 기뻐하도록 말씀합니다.(11절) 회개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며 전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밖에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은총을 기뻐하며 즐거이 외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며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찬양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와 진실하심(4~5절), 말씀으로 하늘과 만상을 지으심(6~7절), 여호와 사역의 위대하심(8~17절),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심(19절) 때문입니다. 찬양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주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를 찬송하기 원하는 경건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찬송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는 일생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찬양은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찬송함이 마땅히 할 바이듯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도 역시 마땅히 할 바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언되고, 영원을 간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 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시 33:9,21)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모든 뼈를 보호하심”(20절)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도”(요 19:33).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9:36)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친히 그 현장을 목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요 20:31) 요한은 이 사건을 보고,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두 강도와 달리 미리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은 유월절(출 12:46 ; 민 9:12)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희생물을 바칠 때에 절대로 뼈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뼈를 꺾지 아니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주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체험한 자이기에 이 일에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시 34:2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대적들의 증오와 핍박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다윗의 비참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10년 동안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향한 구원을 앙망하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느꼈던 깊은 고뇌와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다윗이 평소 믿고 사랑으로 대하던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으며 메시아를 찾던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치명적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내려왔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증인”(11절)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눅 23:21) 외칩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치명적인 원수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읍시다. 십자가 복음을 믿읍시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시 35:16)

기도 제목 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의 완악함(1~4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5~12절)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1절) 악인은 교만하고 완악하여 자신의 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2절) 그리고 습관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즐깁니다. 악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3~4절) 그러므로 악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주의 인자하심(5,7,10절)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십자가 그늘입니다. 십자가와 십자가 그늘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 그늘입니다. 십자가 그늘은 이 땅위에 살면서 영원의 세계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 체험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은총을 덧입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7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시 36: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때때로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본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주권과 공의를 따라 보응하시는 그분의 선한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악인이 누리는 형통과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1~8절) 여기에서 다윗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당장의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 자세를 배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악인이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기도 하나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라는 것과, 의인은 때로 고난을 당하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9~40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2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복음을 증언하며 고난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길을 갔기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4절) 세상에서의 축복보다 꾀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시 37:3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영육간에 전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1~8절), 죄인의 외로움(9~14절), 구원에 대한 간구(15~22절)를 묘사합니다. 죄는 우리의 뼈에 평안함이 없게 하며(3절), 영혼을 지옥까지 빠뜨리도록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이며(4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게(8절)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그의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고 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20절) 여기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회개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22절)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몇 마디 기도로 회개를 마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실패한 삶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지위나 명예나 물질의 회복을 중요하게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초점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구원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시 38:4,18)

기도 제목 ①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생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 노력한 일들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인생 말년의 다윗이 지난 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노래한 시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며(1~6절),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을 호소(7~13절)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다 해도 유한한 삶으로 끝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7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하며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4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두르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하여 좀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의뢰케 하소서 나는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태도는 ‘이 고비만 넘으면 복으로 돌아올거야.’라는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어떤 조건과 결과를 바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와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과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우리는 소망을 영원의 세계에 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dr려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시 39:12)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거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십니다. (1절)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는 일순간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당장에 그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 끝에 그 응답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도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수렁에서 끌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습니다. 시인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입술을 닫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9~10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를 말한다고 합니다. (16절)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입술을 닫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입을 열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시 40:16)

기도 제목 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로 가까이 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작은 자를 선대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든 동안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약한 자들이 조롱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1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작은 자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웃 사랑은 구제나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함을 인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고후 8:9)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대로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름과 명예가 드러나는 곳에만 자기 열심으로 급급하게 쫓아다니며 주의 일을 한다고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교만함으로 목이 곧아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 25:40)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시 41:4)

기도 제목 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가 선교에 방관자가 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전을 떠나 방황하는 시인이 다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갈급함에서 출발합니다. 마치 가뭄(렘 14:1~6) 속에서 물을 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갈급함은 시인을 불안하게 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시인을 괴롭게 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뵈 수 있을까 하는 초조함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3절) 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낙망하여 요단 땅과 헤르몬을 헤매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에 대하여 늘 목말라 합니다. 목마름으로 물을 길으려 왔던 수가성 여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2절) 하는 열망으로 간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떠나 계십니까? 시인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기억을 하며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목말라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말씀만 선포되는 주의 전을 사모하여 다시 발걸음을 돌려 성도들과 함께 회복함을 입는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2:5)

기도 제목 ①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각자 맡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 가운데 자신을 변호할 사람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이 받고 있었던 고통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게 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2절) 시인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고통 받고 있던 시인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자신이 돌아갈 산과 장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소망하며 이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불안해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의 증언자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복음 증언하는 길을 함께 가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시 43:3)

기도 제목 ①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적 고난 속에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탄원합니다.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2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박해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는 로마서 8:36에서 바울에 의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어조와 사도 바울의 어조는 명백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시편 기자는 핍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그의 백성들 위에 임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기뻐할 뿐 아니라 또한 감격스럽게 외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까닭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사 53:7) 두려워하지 맙시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앞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현신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 44:2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소서. ② 각 교회 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왕의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왕의 위엄과 존귀함(1~8절), 왕후의 아름다움(9~15절), 왕조의 형통(16~17절)으로 말씀하는 성경은 왕의 결혼뿐만 아니라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와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왕의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분은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흠모하며 경배하는 신부는 교회 곧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중에 천국 잔치에 대해 강론하실 때 혼인 예식, 왕의 결혼 예식으로 비유하셨습니다.(마 22:2, 25:1) 히브리서 기자는 7절 말씀의 왕을 예수님으로 증언합니다.(히 1:8~9)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7절)고 합니다. 하나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초라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며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영원한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성결하게 하는 믿음의 실천과 거룩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시 45: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소서. ②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월요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여시듯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절) 증언자 세례 요한(6~8절), 찬 빛이신 예수님(9~13절), 말씀의 성육신(14~18절), 세례 요한의 증언(19~28절), 하나님의 어린 양(29~34절), 첫 번째 제자들(35~42절), 빌립과 나다나엘(43~5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1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2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3절), 생명의 근원(4절), 빛(9절)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소개를 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14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 사건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마 1:18)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29절)으로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내가 보고...증언하였노라”(33~34절)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막 1:1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태초부터 로고스 되신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요 1:34)

기도 제목 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4절)의 “내 때”란 말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때를 의미합니다.(7:30, 8:20, 13:1, 17:1) 예수님께서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는 시기는 예루살렘에서 될 일이고 가나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대로 맞추어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절대 순종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은(13~16절)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날카로운 행사를 보고 그가 유대인들 앞에 핍박 받으시게 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17절)는 말씀은 시편 69:9을 인용하여,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 받은 사실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요 2:18)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도록 은혜를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 준수자이며 지식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지만 구원의 진리에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께 대한 공정한 발언을 함으로써 공회원들과 논쟁을 합니다.(요 7:51)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 지낼 수 있도록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줍니다.(요 19:38~42)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부분입니다.(22~30절)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과(27절), 이제부터는 그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며((29절), 자신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흥할 것(30절)이라는 겸손함과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고후 5:17) 성령의 역사입니다.(엡 2:5)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2절)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는 후일 예수님의 시체를 거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니고데모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듯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눈이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 및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인이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9절) → “야곱보다 더 크신 이”(12절) →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신 이”(14절) → “남편이 없는 것을 아는 이”(17~18절) → “선지자”(19절) →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리스도”(29절)입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 오라고(16절) 하실 때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17절) 하며 그녀의 양심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자, 비로소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인은 다시 한번 율법을 들어 예배할 곳(20절)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종교적인 차이만 들춰내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피하려고 화제를 바꾸려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논쟁만 하고 계속 이유가 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은총의 장입니다. 버려진 여인,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던 여인, 사람을 피하여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으러 나와야 했던 여인, 세상에서 목말랐던 여인, 그 갈증으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 길으러 오지도 않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던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여인은 변화하였으며 즉시로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여인의 첫 설교제목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절)입니다.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여인은 불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 4:15)

기도 제목 ① 땅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버려진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으시고 양문으로 가십니다. 38년 된 병자(5절)에서 3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들어가기까지 38년(신 2:14)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셔서 찾아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영적으로 방황하였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며,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고친 사건이 7번이나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자(막 1:21~26), 시몬의 장모(막 1:29~31), 손 마른 자(막 3:1~6), 수종병 든 자(눅 14:1~4), 열 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눅 13:10~14), 베데스다의 38년된 병자(요 5:2~10), 날 때부터 맹인된 자(요 9:13~14)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고치신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10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이며 우리의 모습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문제 삼지 않고, 교회의 전통을 붙들고 정죄하고 시비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구원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아닌 은혜가 됩니다. 자신을 낮게 한 “그”(11절)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낮게 한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 5:30)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충만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무리들이 수군거립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 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42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52절) 유대인들은 오 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을 때 성경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52~59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57절)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이 말씀은 어렵도다”(60절) 합니다. 유대인들의 수군거림과 제자들의 수군거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을 때 끝이 없이 따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수군거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군거리며, 교회를 생각한다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고난의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28절) 묻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29절)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군거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38)

기도 제목 ① 이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 가게 하소서. ② 선교주일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20절)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고 자랑하는 그들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음을 올바르게 지적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시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며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19~20절) 형제들(마 13:55)까지도 빈정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합니다.(1~5절)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선포하십니다.(28~29,31~36절)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앞에 놓고 질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30,44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음을 인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47절) 묻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6,8,30절)에 의하여 움직이시고 율법을 가르치는 완악한 무리들에게 잡혀 돌아가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순복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나 하니라”(요 7:36)

기도 제목 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로 우리 영혼을 덮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② 명절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십자가의 은총과 유대인과의 마찰이 8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1~11절), 빛과 어두움(12~20절), 생명과 죽음(21~30절), 자유와 속박(31~47절), 존경과 멸시(48~59절)입니다. 간음한 여인에게만 율법을 적용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도록 돌리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11절) 하시며 죄의 용서함에 대한 은총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2~20절 사이에 증언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신 17:6, 19:15)라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18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찾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서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교만하게 되어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돌려지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요 8:48)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의 모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맹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놀라운 맹인의 간증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찾는 것 같으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28~29절)라 하며 율법을 들어 예수님을 울무에 빠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33절)라고 맹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따지며 분석하는 종교지도자들은 맹인을 출교시키고, ‘어떻게’라는 질문(10절)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만 합니다. 이들은 성경말씀을 가지고 육체로 판단하며 인간의 전통을 만들고 성경에서 자기의 명예를 찾고 인기만 찾으려 합니다. 영적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안타까운 맹인들입니다.

출교당한 맹인되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들을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3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에 내려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38절) 하는 맹인의 고백이 가슴 벅찬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는(마 11:5)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만져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맹인의 메시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나이다”(25절)와 “예수라 하는 그 사람”(11절)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요 9:27~28)

기도 제목 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장은 생명의 떡(6장), 세상의 빛(8장), 양의 문(10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속성을 선언하고 있어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자이시며, 대속자로서 죽임 당하심을 증언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10절)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고, 예수 믿고 복 받게 하기 위하여 양들을 이끄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16절)라고 말씀하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하며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24절)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25,30절)는 말씀에 분하여 돌을 들어 치려합니다. 이 장 전체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를 지실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29절)의 절대주권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27절)라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깨닫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요 10:3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영혼구원의 열심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1~16절), 나사로의 누이들(17~40절), 유대인들(41~57절)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에 두고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는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35절)의 짧은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시기 위해 유대로 다시 가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방금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7~8절) 하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최고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25절)라고 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고전 15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에 중점을 두고 “믿게 하려 함이라”(15절)는 말씀과 같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4,15,25~27,40,45,48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16절)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 당시에는 두려움으로 헛갈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을지라도 후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요 11:16,53)

기도 제목 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1~11절) 유월절 순례자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온 큰 무리들입니다.(12~19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방의 방문객인 헬라인들입니다.(20~36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37~50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우리의 생애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많은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온 큰 무리(9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행하심만(18절) 보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25절)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7~50절의 말씀의 주제도 역시 ‘믿음’입니다. 이 구절 사이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니(37절), 누가 믿었으며(38절), 믿지 못한 것은(39절), 그를 믿는 자가(42절), 나를 믿는 자, 믿는 것이 아니요, 믿는 것이며(44절), 믿는 자로(4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생명을 잃거나 보전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종의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예비하였던 그 은총을 누리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27)

기도 제목 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1월 구역교재 초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인들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흘러 내렸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장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죄인들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놀라운 복음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전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102	마 26:26~42	첫 성만찬 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0109	롬 1:5~7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0116	롬 1:13~16	놀랍도다	놀라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0123	롬 1:16~17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첫 성만찬 후의 예수 그리스도

| 초점 |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 찬송 |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마태복음 26:26~42

²⁶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⁷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⁴¹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⁴²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최초의 성만찬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집례로 제자들과 함께 행해졌습니다.

※ 성만찬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마태복음 26장 참조)

※ 2009년 첫 성찬식에 참여할 나의 마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첫 성만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수난에 대한 예고였지만, 우리에게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만찬은 우리 구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재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마 26:29

우리는 큰 기쁨 중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날까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성만찬 이후 주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희생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첫 성만찬 후에 구주는 찬양하셨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 예수님은 찬양하셨습니다.

마 26:30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찬양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성만찬에서 드러진 그리스도의 감사는 오묘한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받은 자들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성만찬 후에 예수님이 찬양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당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계 5:9 / 그들이 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 성만찬 때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는 슬퍼하셨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마 26:36~38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하고, □□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_____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곧 닥칠 고통과 수치, 괴로움이 가까이 왔음을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곧 부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 53:5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기치 않은 슬픔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 나를 짓누르고 있던 슬픔은 무엇이었는지, 그 슬픔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는 순종하셨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마 26:42 / 다시 두 번째 나아가 □□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 예수님의 기도(마 26:42)와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 온전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순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펴 보십시오.

예수님께 자신의 뜻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순종입니다.

히 5:8~9

첫 성만찬 후의 예수님은 찬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아셨기에 인간적인 고민과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2009년 첫 성만찬을 마친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만이 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십시오.

히 13:12

엡 2:13

성만찬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념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식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2009년 첫 성찬식을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2. 영적 잠에서 깨어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2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 찬송 |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본문 | 로마서 1:5~7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복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임무를 지닌 사도로서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고전 7:20~21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고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미리 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냄으로 자신의 방문을 예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용하였던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롬 1:5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 □□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 □□하게 하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믿음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새로운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삶을 통해 몸소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요 5:30

요 12:49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골 1:13 / □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로 옮기셨으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롬 1:6 /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부르시고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아옵니다.

딤후 1:9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가 확실히 죽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증언된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 로마서 5:5,8~9, 8:32,35~39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자체입니다.

골 2:15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다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입니다.

롬 1:7 /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 □□□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교파들이 성인에 관하여 특정한 전통들을 확립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확연히 구별될 만한 거룩함이나 놀라운 업적들을 인정받은 몇몇 사람들만이 성인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기준이나 척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로 간주하십니다.

※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saint)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참조 / 골 1:2 ; 빌 4:21 ; 고전 1:2)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총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은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 14:27

눅 10:5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라는 말을 통하여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성도이며 이들은 오직 믿음을 실천할 뿐입니다.

고후 5:7

요일 3:2~3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보혈의 공로로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놀랍도다

| 초 점 |

놀라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본 문 | 로마서 1:13~16

¹³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¹⁴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¹⁵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13절)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전통,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쬔다고 생각했습니다.

롬 1:14 /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_____

바울은 자기와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라고 할 정도로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놀라운 고백과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롬 1:16 / 내가 _____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전 15:3~4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 전도, 교회주변 전도, 이웃 및 직장동료 전도 ...)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유대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이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빌 3:8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습니다.

롬 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_____
_____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
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죄인
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
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
니다.

롬 6:23

고후 5:17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
는 시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반면에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믿
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고전 1:18

인간의 지혜가 실패할 때 복음은 성공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
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놀
랍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습니다.

롬 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_____

바울은 한 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바꾼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딤후 1:15

※ 복음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빌 3:8)

바울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롬 10:11~13

히 7:25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삶에는 그 축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딤후 1:8,10

골 1:6

복음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복음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복음의 능력을 진실로 믿게 하소서
2.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 초 점 |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자

| 찬 송 |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본 문 | 로마서 1:16~17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¹⁷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난처해하거나 변명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복음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복음을 증오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복음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 1:1

※ 복음을 정의해 보십시오. 또한 나의 삶에 진실로 복음이 복음으로 생동(生動)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메섹 사건 전까지 바울은 복음을 적대시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강했던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삶에서 복음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갈 6:14

과연 바울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으며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무엇이 그토록 달랐던 것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막 1:14 /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의 □□을 전 파하여

고전 1:30 / 너희는 _____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는 _____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
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관해 예언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롬 11:33~34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와 함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변의 진리입니다.

벧전 4:4~5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롬 1:16

복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얻는 비법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롬 10:12~13

요 7:38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복음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딤후 24 / 하나님은 이 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끄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계 22: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롬 1:17 / 복음에는 _____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니 기록된 바 _____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복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조
차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들이 선하다
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마태복음 5:20,48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줍니다. 이것이 천
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고후 5:21

행 13:39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롬 3:28) 모
세의 율법이 엄격한 교사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교사이십니
다.(갈 3:24)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복음에 관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삶에서 부딪히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맞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 사실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후 5:7

복음은 참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고 최고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2.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3.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구역원들의 생각과 언행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놀랍도다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3~16)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13절)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전통,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늘 빛을 쬔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14절) 그의 마음에는 자기와 다른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같은 사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빛을 갹았습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15절)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놀라운 고백과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16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역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참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학력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입니까? 혹시 자신의 국적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유대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이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배경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놀랐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16절) 복음은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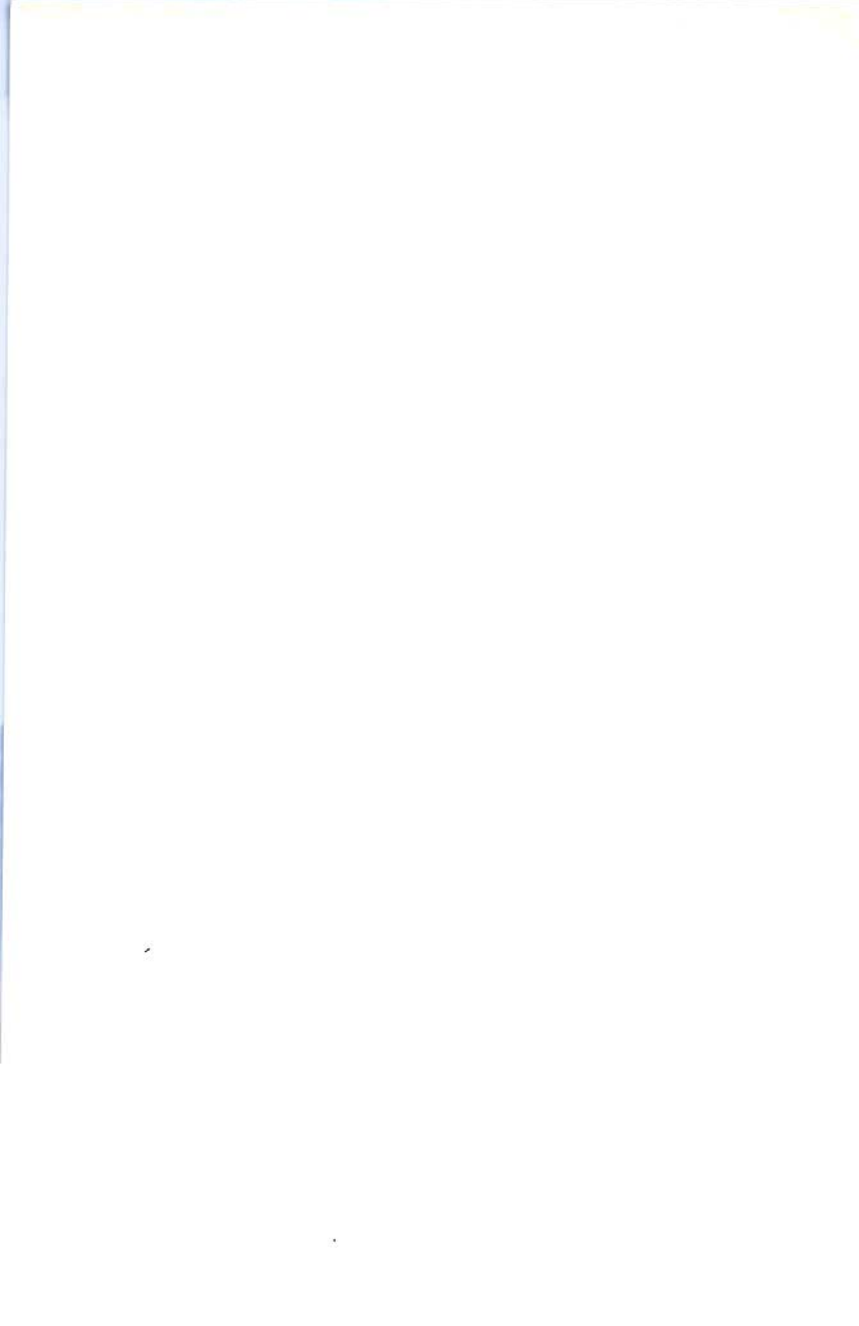
(롬 6:23) 복음은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불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실패할 때 복음은 성공합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다

바울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에 놀랐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16절) 바울은 한 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한 인간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면서 그토록

놀랍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죄의 극악함을 분명히 조명해줍니다. 바울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1~13)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까, 아니면 별 볼일 없거나 하찮은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면서 십자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삶에는 그 축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1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심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